



# 사랑의 흔적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며**칠 전 집에 DVD를 들여놓았다. 새 기기를 들여놓은 기념 삼아 네 식구가 둘러앉아 영화를 보기로 했다.

우연히 고른 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극히 평범한 가정의 얘기였다. 소설가인 남편과 낱말맞추기 작가인 아내는 일상적인 낱들을 보내면서 서로 의식하지 못하는 새 자꾸만 틈새가 벌어져 간다. 신접살림을 차렸던 낡은 아파트가 새단장을 위해 붕괴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지나간 시간의 추억을 나누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시간 아내는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쫓겨 남편의 감상에 함께 빠져들 여유가 없다. 뿐인가. 남편과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도 이빨을 뺨 아이의 베갯머리에 돈을 놓아두는 것(이건 미국의 풍습이다)을 잊은 것이 생각나 마음을 빼앗긴다.

가끔 아내는 힘겨운 집안 일을 원망하며 남편과 이런저런 애기를 나누고 싶어하지만 정작 남편은 자신의 일에 사로잡혀 듣는 등 마는 등 대답도 건성이다. 뒤늦게 위험 상태에 놓인것을 알아챈 부부는 아이들을 여름방학 캠프에 보내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오히려 상태는 악화돼 이혼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혼결정을 아이들에게 알리기 직전. 아내는 “헤어질 수 없다”고 울부짖고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아이고, 어쩐’ ‘그래, 그래’ 속으로 맞장구까지 치며 영화의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었지만 진

정 나의 가슴을 후려친 것은 아내의 마지막 말이였다.

“이건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아침에 당신의 눈썹을 보면 나는 당신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당신은 내가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알죠.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며 아무에게나 조쉬(아들)가 당신을 닮았다고 말하거나 에린(딸)이 링컨 기념관에 가서 토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없어요.”

그렇다. 삶이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가정이란 그 추억의 돌들을 가족이 하나씩 켜켜이 쌓아올려 만든 공간이다. 때론 뿔 듯이 기뻐고, 때론 땅이 꺼지도록 슬펐고, 때론 죽고싶을 만큼 비참했고, 때론 세상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던 순간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사랑이 남긴 흔적들이다.

오늘의 일상적인 삶에 쫓기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느라 부족한 시간을 쪼개야 하는 현대인들이 모여 등지를 이룬 우리네 가정은 외양은 화려하지만 조그만 침대에 찢려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비눗방울처럼 결속력이 약하다. 그러나 연약한 ‘비눗방울 가정’ 속에도 함께 생활하며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구석 구석에 남아있다.

생활에 지치고 가족이 원망스러워질 때 잠시 오늘, 이 순간에서 벗어나 한 바퀴 집안을 둘러보며 사랑의 흔적을 더듬어보자. 슬며시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가. PPFK

